

전남産 농수산물, 캄보디아 소비자 사로잡았다

프놈펜 대형 쇼핑몰서 K푸드 판촉전 김·미역·고추장 등 36종 선봬 호평

전남지역 프리미엄 농수산물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온몰 센속 시티'에서 '전남 케이-푸드(K-Food) 판촉전'을 열어 해조류와 장류 등 36종의 전남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판촉전은 전남도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K-콘텐츠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됐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유통기업 캄코브라더스(CK)의 킨 삭(Kin Sak) 대표와 정종용 고문, 언 소파(Un Sopha) 이온캄보디아 이사,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송동일 재캄보디아 농수산물협회장을 비롯한 현지 경제·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일반 소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판촉전에선 전남 대표 수출기업 ㈜홍일식품의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해 고추장, 찜닭 등 총 36종의 전남산 제품이 소개됐다.



김영록 지사는 행사에서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고 나눠 먹으며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가 위치한 이온몰 센속 시티는 주말 평균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로 중산층과 외국인 거주자가 집중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활용해 K-푸드 고급 이미지 구축과 수출시장 확대를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시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캄보디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의 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41만달러 규모로 이 중 조미김(6만달러),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67만달러) 중심의 식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전통 주류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촉전은 동남아 수출 확대 가능성 실현의 마중물이자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맛은 정정 바다와 비옥한 들녘에서 나온다. 판촉전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과 전남의 건강한 맛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전남 농수산식품이 세계적인 식탁 위에 오르도록 글로벌 판촉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미국, 베트남, 태국 등 13개 국가에 총 31개 상설판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통사와의 정기 수출상담회, 상설 판매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강화는 물론, 프놈펜의 지역으로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모색할 방침이다. /양서원 기자

김영록 지사, 캄보디아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보건부장관 등과 교류 활성화 회담 인력 양성·의료환경 개선 지원키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치앙 라 캄보디아 보건부장관, 렘 다라 캄보디아의사회장을 비롯한 고위급인사,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전남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보건 정책 공유, 상호 보건의료 역량 강화, 의료 취약 지역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캄보디아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내 의료환경 개선·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보건과 질병예방 협력 사업 추진 ▲두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 경험 공유 ▲의료인력 교류, 보건교육, 의료봉사 활동 등이다.

전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캄보디아 시엠립·프놈펜(2018년), 뽏삿시(2023년) 의료봉사 활동 뿐만 아니라, 응급차량과 소방차량·의료장비 등을 지원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의료 지원, 경북 산불 의료지원 등 국내외 의료 봉사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이번 회담이 민·관 협력의 성공적 발판이 되길 바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도민 건강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사회와 캄보디아의 사회의 보건의료 협력, 의료기술 지원, 인력 양성, 의료봉사 등 상호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캄보디아와의 귀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번 협력이 두 나라의 상호 발전과 국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김지사,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중 임명

관련 절차 마무리... 발표만 남아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을 이번 주중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임명할 전망이다. 강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친명' 인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 상임고문에 대한 인

사부서의 인사 검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김영록 지사의 최종 결재만 남았으며 17일 또는 18일께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민선 8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인선하기 쉽지 않은 만큼 별정직 1급 공무원을 경제부지사로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방형은 공

모가 필요한 반면, 별정직의 경우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된다.

전남도는 강상임고문이 고향인 영광에서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10여년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농식품유통위원장으로 일하며 전국 최초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는 등 지역발전에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 지사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전남 상생발전 3년째 개점휴업"

이재태 도의원, 실효성 있는 운영 촉구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3년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전남도의회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시 3)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출범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매년 1-2차례씩 양 시·도가 윤번제로 운영했지만 2022년 7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올해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 500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됐다.

이와 함께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돼 있다.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 2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0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태 의원은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문화산업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우주항공
뉴페이스 시대 우주항공 방산

바이오
차세대 주력 사업

SUNCHEON
순천시

순천이 하면 다릅니다!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순천